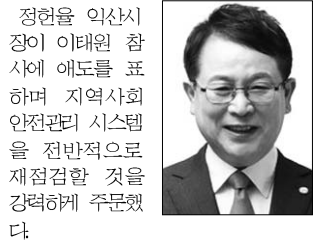


“안전관리 시스템 재구축해야”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정현을 익산시장, 시 주최 · 후원한 축제 · 행사 전면 검토... 안전관리 방안 점검



정현을 익산시장이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지역사회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러한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하반기 크고 작은 축제를 진행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국가 예산 확보라는 중요한 업무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전 직원들의 안전 인식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앞서 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보석찾기 감쪽축제와 화려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취소했으며 천민송이 국화축제도 관람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획된 행사와 축제 계획을 재점검하고 대규모 인파

가 몰리는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하반기 크고 작은 축제를 진행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국가 예산 확보라는 중요한 업무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전 직원들의 안전 인식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앞서 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보석찾기 감쪽축제와 화려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취소했으며 천민송이 국화축제도 관람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획된 행사와 축제 계획을 재점검하고 대규모 인파

익산시, 전담 상담사 9명 파견... 개별적 맞춤형 상담 실시

익산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모인·소리공원 고물상을 이용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상담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리산과 모인공원에 위치한 고물상이 철거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전담 상담원 9명을 남동, 남중동,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 지역으로 파견해 상담을 진행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번 상담에는 전체 폐지수집 어르신 75명 가운데 43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38명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정부 긴급지원사업, 익산형 긴급지원사업과 다이용 나눔공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시는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폐지수집 어르신 전체에 대해 전화, 방문상담을 빠짐없이 진행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가지 개인사로 다양한 복지 욕구가 있는 어르신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 정책 강화

전국 최고 청렴 도시 익산시가 종합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현장과 소통하며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파악하고 현장 여건을 수렴해 청렴 문화를 개선하는 종합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민관 청렴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시에서 발주한 500만원 이상 공사·용역사, 인허가 민원인 등에 대한 감사관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렴 해피콜, 청렴 메아리 열서 발송 등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

해 부패신고 창구 단일화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부패방지제도 실행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 대·내외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며 깨끗한 청렴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정현을 시장은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부패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표명하고 민관 소통 활성화를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다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으뜸 도시 익산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발달장애인 자립기반 마련한다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공모 선정... 국비 18억5000만원 확보

익산에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특화사업장이 구축된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재)장애인지원센터가 공모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8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모 선정에 따라 향후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28억여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4년까지 교육실, 창업보육실 등을 갖춘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공동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교육장과 현장실습 시설, 창업보육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의 진취적이고 다양한 농경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스마트팜 시설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교육·경험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이 건립되면 (재)장애인지원

종합지원센터가 5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시설과 설비는 익산시로 기부채납된다. 사업장은 현재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물론 추후 발달장애인 통합 복지타운 구축기반 마련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경제와 돌봄이라는 일거양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설치

군산시는 11월부터 공중화장실 22개소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은 외부의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만 가능해 경찰 대응이 인근 시민의 신고에 의존했다면, 이번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은 작동 시 군산경찰서 112상황실과 화장실 내부에서 직접 통화가 가능해

긴급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이상 음원 감지장치가 추가되어 비상벨 버튼을 직접 누르는 방법 외에도 비명, 파손음 등의 이상 음원이거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등의 특정 단어를 인식하면 작동해 112 상황실과 직접 연결된다. 시는 지난 3월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화장실 외부에 안심 거울을 설치했으며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의 적극적 협조로 내부에서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을 정비하게 됐다. 시는 공중화장실(127개소) 중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범죄 취약지역을 진단 후 방문인구가 많은 곳과 야간 설치했으며, 올해 운영을 토대로 내년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 복지시설,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 ‘재탄생’

익산 석암동에 위치한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특수학교 ‘전북맹아학교’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시는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전북맹아학교가 선정돼 국비 1억 9,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추진될 복지시설 나눔숲은 시각 장애인으로 평소 자연 체험의 감동과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각장

에 학생에게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오감 체험숲으로 조성된다. 숲이 조성되면 인근 초등학교와 생태 환경 통합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 선정으로 시 예산을 절감하며 국비 100%로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모에 적극 참여해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그동안 2010년 삼정원, 2013년 덕암, 2014년 동그라미, 이리자연원, 전북해화학고, 2015년 훈훈한집, 2016년 원광실버의 집, 2020년 시운유아원 등 총 9억여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8개소의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늘푸른학교 문해한마당 개최

군산시는 오는 11월 1일 군산 월명실내체육관에서 문해학습자들의 축제인 ‘제13회 군산시 늘푸른학교 문해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배운 솜씨를 자랑하고, 문해교사와 하 나로 어우러진 올 한해 문해학습 결실의 장이다.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해 기념식, 학예발표회, 학습성과물 전시 등의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금 지급 신청

군산시는 지난 31일 지방세 환급금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편 및 문자를 받은 환급금 지급대상자는 카카오톡에서 ‘군산시지방세환급’ 검색 후 상담원 채팅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환급받을 본인명의 계좌번호(은행명), 연락처를 입력해 신청하면 담당자 확인 후 일주일 내 은행계좌로 지급된다. 채팅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자는 평일 근무시간에 답변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미리 등록한 계좌로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급계좌 사전등록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편리하고 쉽게 지방세 환급금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모바일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며, 스피드 문자로 오해하지 마시고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